

어린이 교통안전 조성 '총력전'

도교육청, 전북도 등
도내 8개 기관과 협약
교통사고 제로화 다짐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총력을 펼치고 있다.

그 일환으로 14일 전북교육청 2층 강당에서 인천 전북, 어린이 교통안전 사고 예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해 전북도, 전북지방경찰청, 전북지자치경찰위원회,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 도로교통공단 전북본부, KBS 전주방송총국, TBN전북교통방송 등 8개 기관과 손을 맞잡았다.

이 자리에는 서거석 교육감과 김관영 전북도지사, 김병기 전북경찰청 차장경찰부장, 이형규 전라북도지자치경찰위원장, 전진호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장, 기용걸 도로교통공단 전북본부장, 김성모 KBS전주방송총국장, 박경민 TBN전북교통방송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은 어린이 교통안전 분야 유관기관들이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도민 교통안전 의식 제고로 안전한 전북을 구현하면서 어린이가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드는 게 목적이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전북도교육청이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총력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14일 전북교육청 2층 강당에서 전북도 등 도내 8개 기관과 '인천 전북, 어린이 교통안전 사고 예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어린이를 숨기지 하거나 다치게 한 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 법' 시행 이후에도 스쿨존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는 등 어린이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협약 내용은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을 위한 정책 수립 △안전한 전북 실현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안전

한 교통환경 구축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 △도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방송 등이다.

김병기 지사는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및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면서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서거석 교육감은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이 전북교육의 최우선 과제"라면서 "인천 교육을 강화하는 등 학생 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앞으로 8개 기관이 어린이 교통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장은성 기자

전주교대, 개교 100주년 맞아



전주교대는 14일 오후 2시 나래코리아와 함께 전주교대 100주년 기념 및 지역사회 문화 향유 기획 확대를 위한 조인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대학의 역사를 알리는 계기"

나래코리아와 특별음악회 조인식

전주교대(총장 박병춘)는 14일 오후 2시 나래코리아(대표 김생기)와 함께 전주교대 100주년 기념 및 지역사회 문화 향유 기획 확대를 위한 조인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4월 26일 7시에 열리는 제24회 전주국제영화제와 함께하는 나래코리아 & 전주교대(총장 개교 100주년 기념 특별음악회)'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이뤄졌다.

전주교대 본부동에서 열린 조인식에서 양 기관은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장소·장비 등 제공에 관한 협력과 구성원 지역민 등 사업 수혜 범위 확대를 위

한 사업추진 및 홍보 협력을 약속했다.

김생기 대표는 "완연한 봄, 좋은 시기에 나래코리아가 전주교대와 손을 잡고 특별한 음악회를 개최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지역주민들에게 잊지 못할 시간이 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박병춘 총장은 "양 기관의 협력을 통해 우리 대학교 개교 100주년 역사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이번 음악회가 많은 지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함께하는 축제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프랑스 주요 도시에 한옥 정원 조성 | 전북대-전주시-케이가든협회, 협약

한옥건축 기술력 수출·대응체계 구축



전북대학교는 14일 양오봉 총장과 프랑스 케이가든협회 레지스 주비니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옥 수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한 레지스 주비니 회장은 프랑스 베르사이유궁의 조경 총감독으로 국제적인 조경 전문가다.

이에 따르면 프랑스 케이가든협회는 지난해 6월 한국 정원을 중심으로 진화하는 유럽의 생태학 및 문화 프로젝트에 부응하기 위해 프랑스 상원의 요청으로 설립된 단체다. 최근 프랑스 상원과 대한민국 국회가 상호 교류의 일환으로 프랑스의 주요 도시에 한국 정원을 조성하기로 해 이번 협약이 이뤄진 것이다.

3개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프랑스의 주요 도시에 한국 전통 정자와 전통 정원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북대는 한옥건축 기술력도 수출할 예정이다.

특히 전주시는 '왕의 궁원 프로젝트' 일환으로 전주 한옥마을과 연계

전북대학교는 14일 양오봉 총장과 프랑스 케이가든협회 레지스 주비니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옥 수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 한옥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한옥의 해외 수출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양오봉 총장은 "이번 협약은 미래

지향적인 비전을 지니고 있는 전통 한옥의 우수성을 세계로 확산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면서 "우리 대학이 보유한 자원을 적극 활용해 세계 한옥 건축 분야의

R&D 구축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우범기 시장은 "한옥 수출 지원 및 기술 고도화로 한국건축문화의 경쟁력을 높여 글로벌 시장 선점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북대 및 프랑스 케이가든 협회와 연계해 한국 목재건축의 생 산과 기공, 유통, 체험의 원스톱 거점화를 만들자"고 말했다.

레지스 주비니 회장은 "전북대와의 협력모델 구축을 통해 한옥 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네트워크 확대에 앞장서겠다"며 "한옥건축 활성화를 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나아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기사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대는 베트남 알제리, 미국 등에 한옥을 수출한 바 있다. 현재 필리핀에서 공사를 진행 중이다. 또한 호주 시드니,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등과 수출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의산교육문화회관, 스마트 미디어 교육 운영

초등 미디어 리터러시 등 6개 과정 구성… 회관 누리집서 신청

의산교육문화회관(관장 김형태)은 2023년 스마트 미디어 교육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교육은 상·하반기로 운영되며, 초등 미디어 리터러시, 도전! 방송 직업, 가족 유튜브 교실, 라이브 커머스 교육, 미디어 면접 시대 등 6개 과정으로 구성됐다.

먼저 '초등 미디어 리터러시'는 초등 학생들에게 다양한 미디어 정보 중 올바른 정보를 선택해 받아볼 수 있도록 도록 도와주는 교육이며, '도전! 방송 직업'은 초등학생 대상으로 스튜디오와 카메라 등을 활용한 아나운서, 기상캐스터 등 방송 직업 체험 교육이다. 또 가족과 함께 미디어 콘텐츠 제작 및 유튜브 개설 등 미디어 활용법을 알려주는 '가족 유튜브 교실'도 운영된다.

이어 '라이브 커머스 교육'은 소상공인들이 온라인을 통해 스스로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전문 교육이며,

호원대, 유치원 교사 임용시험 2명 합격

올해 전국 평균 23.6:1 경쟁률



호원대학교 유아교육과는 2023학년도 공립 유치원교사 임용시험에서 2명이 합격했다고 밝혔다.

올해 공립유치원 교사 임용시험은 전국 평균 23.6: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강희성 총장은 "전국의 공립유치원 교사 선발인원이 높은 경쟁률에도 불구하고 임용시험 합격자를 연속 배출했다"며 "앞으로도 우리대학 유아교육과의 학생들이 공립유치원 교사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성주 유아교과교수는 "임용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임용 관련 수업 및 특강 임용 동아리 활동, 임용자료실 및 스탠다일 제공 등 체계적인 지원과 더불어 임용협력 선배 초청특강을 열어 선후배 간 멘토링과 시험 정보를 제공한 것이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된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호원대학교 유아교육과는 올해 전국 평균 23.6:1의 높은 경쟁률에 맞춰 2명이 합격했다.

이 사업은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력을 양성해 국내 기업에 공급함으로써 청년 취업을 활성화하고

도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참여하는 학생들은 정규 교과목 외에 취업 프로그램 및 산업체 인턴십 과정, 기업 맞춤형 자격증 취득 교육

을 받을 수 있으며, 인권 및 생평준증

을 다수 배출했다.

/장은성 기자

우석대,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선정

고부가가치 농생명 식품산업 글로벌 인재 양성 '탄력'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양성사업에 선정, 고부가가치 농생명 식품산업을 이끌 글로벌 인재 양성이 탄력을 받게 됐다.

이 사업은 전북도(제3)전북테크노파크가 기업과 대학 간 일자리 미スマ치를 해결하고 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우석대는 지난 2013년부터 대학원 식품생명공학과 중심이 돼 50여 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해 전라북도 내 기업과 연구기관에 진출시켰으며, 올해도 13명의 대학원생을 선발했다.

현재 우석대학교 식품영양학과는 교육부의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과 LINC

3.0 사업 등을 통해 학부 교육의 특성화를 지원하고 이를 대학원 식품식사 특성화과정으로 연계해 실무역량을 겸비한 고부가가치 농생명·차세대 가능성 식품산업을 이끌 전문인력 양성에 매진하고 있다.

총괄책임자인 오석홍 신학협력단장은 "전북도가 대한민국 농생명 산업 수도를 선포하고, 고부가가치 농생명 식품생태계 조성에 힘을 모으고 있는 시점에 우리 대학교가 이 분야를 선발 최상의 맞춤형 인력양성 체계를 마련하게 됐다"며 "산학연관의 지속적이고 끈끈한 협력을 통해 성공적인 기업지원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전주비전대, 대학 산·학·관 커플링 사업 선정

전주비전대학교(총장 직무대행 우병훈)는 2023년 대학 산·학·관 커플링 사업에서 'LETS JUMP 보건의료 창의융합 인력양성과정'에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력을 양성해 도내 기업에 공급함으로써 청년 취업을 활성화하고 도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참여하는 학생들은 정규 교과목 외에 취업 프로그램 및 산업체 인턴십 과정, 기업 맞춤형 자격증 취득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인권 및 생평준증

특강,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성교육과 함께 장학금 혜택도 받는다.

또한 취업한 학생 관리를 위한 취업 추수 지도를 비롯해 '졸업생 Homecoming day', 취업 방문지원 등 맞춤형 관리까지 이뤄진다.

커플링 사업단 김재현 단장은 "보건의료기관 수요에 부합하는 직무능력 중심의 실무형 인재양성을 통해 전북 지역의 인적자원에 대한 우수 교육인력 육성으로 도내 보건의료의 경쟁력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던"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